

려준 식사를 몇 번이나 함께했는지! 호리병박에 가득 담긴
염소젖이며, 신선한 달걀이며, 바나나잎에 올린 떡이며, 바
구니에 잔뜩 담긴 고구마, 망고, 오렌지, 석류, 바나나, 아
노나,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다 그대로 가장 건강한 음식
이자 동시에 가장 선명한 빛깔, 가장 달콤한 즙을 선사해
주었는데.

그린 진수성찬만큼이나 대화도 도톰고 때 묻지 않은 그
대로였네. 풀은 그날 한 일과 다음날 할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어. 늘 이 가족공동체에 유용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던 게지. 이쪽에 가면 오솔길 다니기가
불편했고, 저쪽에 가면 샅기가 영 나빴어. 이쪽 통로의 어린
나무들은 충분한 그늘을 마련해주지 못했으니, 비르지니에
게는 저쪽이 더 좋을 것만 같았다네.

우기가 되면 두 가족은 주인이고 하인이고 할 것 없이
오두막에 다 같이 모여앉아, 꿀풀을 엮어 돛자리를 짜거나
대나무 바구니를 만들면서 바쁜 하루를 보냈네. 담 안쪽
벽으로는 갈퀴며, 도끼며, 삽이며 하는 것들이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고, 이들 농기구
옆에는 그걸로 농사를 지어 거둔 쌀자루, 밀단, 바나나 송이
등의 농산물이 보였지. 오두막 안에서의 풍요에는 늘 섬세
한 솜씨가 뒤따랐네. 비르지니는 자기 어머니와 마르그리
트에게 배운 대로 사탕수수, 레몬, 시트론으로 즙을 짜서
소르베와 강심제를 만들어두곤 했어.